'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고 싶어도 '두려움' 때문에 …

아주 오래된 연인, 아니 엄밀히 말해서 아주 오래된 불륜 남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만나고 있는 장수 커플들의 이야기이지요. 이들 중 두 커플은 유부남과 처녀이고 두 커플은 유부남과 유부녀 커플입니다.

먼저 8년 된 유부남과 처녀 커플입니다. 그들은 처음 2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의 증거인 두 번의 임신 중절, 셀 수 없이 많은 헤어짐과 감격적인 눈물의 해후,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몸부림의 세월이었지요. 그 2년이 지난 후, 헤어지고 싶지만 말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싸움과 지지부진한 화해와 여러 번에 걸친 부인의 전화, 갈등과 번민과 후회와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과 혐오의 감정으로 자살과 복수를 꿈꾸는 6년을 보냈습니다. 도합 8년의 세월을 애인 어깨에 얹어주고, 그 남자는 아내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숨바꼭질하던 친구 버리고 엄마가 불러서 집에 가버린 아이처럼, 그렇게 가버렸지요.

다음은 10년 된 유부남과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위 커플과 유사한 패턴의 시간을 보내고 26살이었던 처녀가 이제 36살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고 싶지만, 그가 애인과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결혼을 꿈꾸고 있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직장에 찾아와 멱살잡고 집으로 쳐들어올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명

문대학 출신의 남자는, 남편의 외도를 꿈에도 모르는 아내가 잘 키워놓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10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3번의 임신중절을 하고 서른여섯이 되어버린 고졸의 애인을 조용히 떼어버릴 방법을 찾느라 여기저기 상담중입니다.

이제 유부남과 유부녀의 이야기입니다. 7년된 분들이지요. 가정생활이 편치않은 유부녀가 유부남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가정은 더 엉망이 됐고, 만나는 세월 내내 이혼을 꿈꿨습니다. 꿈만 꾸며 버티기에 7년의 세월은 길지요. 남자의 사

> 10년을 넘게 사귄 그녀는
> 벌써 서른여섯의 애물단지
> 어떻게 하면 떼어버릴 수 있나
> 그 남자는 오늘도 상담중

랑의 속삭임만으로 약발이 먹히는 세월이 지나고, 사랑한다면 나를 택할거라는 기대로 버틸 수 있는 한계도 넘어버린 어느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야한다면 헤어지는게 낫다는 내용의 길고 긴 메일을 보냈지요. 언제나처럼 붙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단 한줄의 답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이별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8년된 유부남 유부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은 한번도 무리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8년이 되도록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잘 처신해 왔지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그들은 6시에 퇴근해서 8시까지 만나고 집에 갑니다. 그들은 이제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과 다른 점은, 여전히 변치않고 사랑을 속삭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지 않는 상대에게 질릴 이유도 헤어질 이유도 없는 그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년도 거뜬해 보입니다. 남자가 특정 유부녀 동료에게 지나치게 친절해서 양다리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제외하면, 그들은 오늘도 아무 문제없이 행복합니다.

나름대로 험한 세월을 잡초처럼 살아오신 분들께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저 배우자를 속이고 정절을 버리는 위대한 결단의 결과가 겨우 저것밖에 안되는게 좀 황당하고,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한없이 미약한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끝나지 않은 '순천향병원 사건' 네티즌 관심

지난 1980~90년대 인기를 얻었던 그룹 '신촌블루스' 출신의 가수 김형철이 간암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도의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고인은 1991년 '신촌블루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신촌블루스 라이브 앨범'에 참여했으며 1993년에는 솔로 음반을 발표했다.

병원 측과 유가족의 합의로 일단락된 '순천향병원 사건'도 화제가 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수술 뒤 숨진 여중생 임모(14)양의 시신을 놓고 유가족과 병원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비롯됐는데, 한 때 '순천향병원 사건','부천순천향병원', '시신 강탈' 등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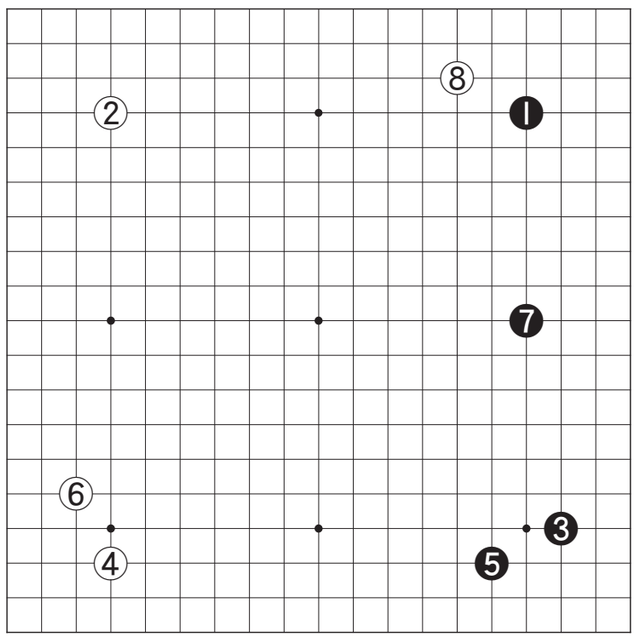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최근 종영된 MBC 드라마 '하얀거탑' 속 의료사고를 상기시킨다며 '순천거탑'이라고 부르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선혜윤 MBC PD와 웨딩마치를 올렸던 신동엽이 지난 4일 건강한 딸을 얻었다는 내용과 최근 화보를 통해 만삭의 몸을 공개했던 탤런트 장신영(23)이 지난 2일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이외 '8월의 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등을 연출한 허진호(44) 감독이 오는 5월 31일 10살 연하의 호텔 마케터 박정숙씨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도 클릭 세례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 개교 이래 한국인 첫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은 여학생이 같은 대학 물리공학 전공 석사과정에도 수석 입학했다는 채은미(24)씨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됐다. 또 탤런트 황지현이 공개한 화보도 네티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톱스타 현빈의 연인으로 유명한 황지현이 화보집에서 섹시한 몸매를 드러내 화제가 됐다.



제2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 2국

백홍석의 무서운 질주 1보(1~8)

白 백홍석 5단 黑 안조영 9단

이지역 광주출신인 백홍석 5단이 무서운 기세로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86년생으로 입단 7년차인 백 5단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삼성화재배 세계대회 4강진출을 시작으로 SK가스배 신예프로10걸전 우승을 차지하고 최고승률왕(승률 77%)과 신인왕을 거머쥐면서 일약 한국바둑의 총아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백 5단의 승점에는 삼성화재배 8강전에서 중국의 위빈 9단을 격파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최정상급인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9단 등을 모두 이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백 9단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다.

제2기 원익배 십단전에서도 준결승에서 난적인 독사 최철한 9단을 꺾었다.

안조영 9단은 79년생으로 백홍석의 7년 선배가 된다. 안조영 역시 신인왕전에서만 두번 우승했을 뿐으로 누가 우승하더라도 본격기전의 정상을 차지하는 일생일대의 큰승부를 맞이하고 있다.

이 바둑은 제1국에서는 백홍석이 의욕적인 포진으로 맹공을 퍼부었으나 안조영의 호수비에 막혀 불계패를 당한 후에 막판에 몰린 제2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KT배 왕위전 8강 확정

KT배 왕위전 8강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다.

지난 4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41기 KT배 왕위전 16강전 토너먼트 결과 박영훈, 윤준상, 최철한, 조한승, 이성재, 허영호, 한상훈, 윤찬희 등 8명이 8강전에 올랐다.

이날 대국에서 최철한은 245수 끝에 백 반집으로 유창혁을 제압했고, 윤준상은 옥득진을 173수 만에 흑불계로 물리치고 8강에 올랐다. 박영훈도 홍성지를 235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8강행을 확정했다. 8강전은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회 우승상금은 4천800만원(준우승 2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58.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등에서 발원한 이 현상으로 지난 1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 경보가 내려진 것은 기상청이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4월10일 이후 처음입니다.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① 황사 ② 온난화 ③ 엘니뇨 ④ 라니냐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음 2월 19일 庚午)

子 36년생 좋은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48년생 욕심을 버리고 만사에 주의하면 길사가 있다. 60년생 역마기가 발동하니 장거리 여행은 길하다. 72년생 구설 시비 등 사소한 일이 괴롭히니 주변을 살펴보라. 84년생 횡재수가 보이니 복권을 구해보라. 행운의 숫자 : 18, 19

丑 37년생 소신껏 추진하면 큰 득이 있으리라. 49년생 뜻은 높으나 기회가 안 보인다. 61년생 인생의 지혜를 후배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 73년생 안정을 취한 연후에 생각하고 행하라. 85년생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내의 사랑이 행한 만큼 있다. 행운의 숫자 : 14, 43

寅 38년생 실물수가 보이지만 주의하면 비켜간다. 50년생 신사가 생기니 앞뒤를 살피라. 62년생 요추에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으니 무리는 삼가라. 74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에 끝내라 내일이면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24, 31

卯 39년생 보고 또 보고 주변을 살펴보라. 51년생 직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63년생 사무실과 가정, 남편과 자녀까지 모두를 살펴보라. 75년생 무리한 변화가 예상되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12, 35

辰 40년생 처와 재물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52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화해하며 지내라. 64년생 직장과 남편에게 변화가 온다. 7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안심은 이르다. 행운의 숫자 : 22, 28

巳 41년생 건강과 재물은 같은 편이다. 53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주의해서 결정하라. 65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77년생 돈은 들어오나 쓴 구멍 막기가 바쁘다. 행운의 숫자 : 21, 44

午 42년생 지출은 발생하나 오히려 수입이 더 크다. 54년생 이웃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6년생 작은 일도 꼼꼼하게 성공이 약속된다. 78년생 새 인생의 동반자가 가까이에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3, 39

未 43년생 기쁨은 크고 아쉬움은 작다. 55년생 뜻밖의 횡재는 있어 그 결과 크리라. 67년생 손윗사람과 돈거래는 신용만 잃는다. 79년생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리면 큰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0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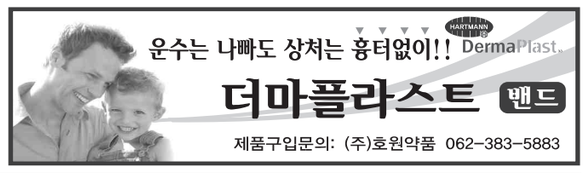
申 44년생 먼저 베풀어라 그 보답은 클 것이다. 56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으니 신뢰를 지켜라. 68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80년생 부모에게는 효도를 자식에게는 가정교육이 제일이다. 행운의 숫자 : 12, 30

酉 45년생 시작은 했으나 쉽지는 않다. 57년생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하나 큰 손실은 없다. 69년생 지혜는 제사를 순조롭게 만드니 웃어른에게 지혜를 빌려라. 81년생 腎虛腰痛 무리하게 힘쓰면 허리가 아프다. 행운의 숫자 : 17, 42

戌 46년생 주변을 칭찬하면 자신도 올라간다. 58년생 부부간에 예의를 지키면 사랑도 지켜진다. 70년생 제일 편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82년생 좋은 이성의 만남이 예상되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01, 41

亥 47년생 눈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족을 살펴보라. 59년생 다른 사람의 불편을 살피면 내 불편도 사라진다. 71년생 배우자의 덕은 본인 스스로가 만든다. 83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이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2, 4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877>

Take you time

천천히 하세요

A:You have an excellent library.
B:Thank you. I guess I've managed to collect a few books over the years.
A:Do you mind if I look through them?
B:Not at all. **Take your time.**

A:상당히 많은 책을 가지고 있구만.
B:고마워. 여러 해 걸쳐 가까스로 모을 수가 있었지.
A:책을 펴 봐도 괜찮겠어요?
B:그럼요. **천천히 하세요.**

Take your time.
= There's no hurry.
= Take as much time as you like.
= Take all the time in the world.
* 유사 표현
have a time : 즐겁게 보내다
make a time : 서두르다
kill a time : 시간을 보내다, 소일하다
lose a time : 시간을 낭비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77>

酒癖(さけぐせ)がわるいそうですよ

술 버릇이 안 좋다고 해요

A:木村(きむら)さんって**酒癖(さけぐせ)がわるいそうですよ**。
飮(の)むと亂暴(らんぼう)になるんですって。
B:そうですか。
A:そうなんですよ。今(いま)の奧(おく)さんが5番目(ばんめ)の奧さんなんですって。
B:そんなにまじめな顔(かお)をして?

A:키무라씨 말이예요. **술 버릇이 안 좋다고 해요.** 마시면 난폭해진데요. 글쎄
B:그래요?
A:그렇다니까요. 현재 부인이 5번째 부인이라나?
B:그렇게 성실한 얼굴을 한 사람이요?

酒癖(さけぐせ) : 술 버릇
亂暴(らんぼう) : 난폭
奧(おく)さん : 부인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68>

美丽的丽江

아름다운 려강

A:在云南有一个丽江古城。
ZàiYúnnaányǒuyígelìjiānggǔchéng
짜이 윈난 여우 이꺼 리찌앙 구쳐엉.
B:我去过，那是少数民族纳西族住的地方。
Wǒqùguo,nàshìshǎoshùmínzúnàxīzúzhùdedìfang
워 취구어, 나 스 샤오슈민주 나씨주 쭈더 띠팡.
A:你最喜欢丽江的什么?
Nǐzuìxǐhuanlìjiāngdeshénme?
니 쭈에이 시후안 리찌앙더 션머?
B:我最喜欢丽江的桥、房子、文字，还有丽江旁边的雪山。
Wǒzuìxǐhuanlìjiāngdeqiáo、fángzi、wénzi、
háiyoulìjiāngpángbiāndexuěshān
워 쭈에이 시후안 리찌앙더 치아오, 팡즈, 원즈,
하이여우 리찌앙 팡비엔더 쉬에샨.

A:운남성에 려강고성이 있어.
B:나 가봤어, 소수민족인 납서족이 사는 곳이잖아.
A:너는 려강의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B:나는 려강의 다리, 방, 문자, 그리고 려강 옆에 있는 설산을 좋아해.

云南 〔Yúnnán〕 운남(지명)
丽江 〔Lìjiāng〕 려강(운남성 서북쪽에 위치한 강)
纳西族 〔nàxīzú〕 납서족
(중국 소수민족중 하나, 운남, 사천지방에 분포)
雪山 〔xuěshān〕 설산(만년설이 덮인 산)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94>

食 客 (식 객)

먹을 식, 손 객

식객(食客)은 예전에 세력가의 집에 있으면서 문객 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특히 춘추전국시대의 '식객'은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밥만 얻어먹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가의 힘을 빌려 출세하려는 야심가이기도 하였다.

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은 각양각색의 식객을 수천 명이나 거느렸다. 그의 식객 중에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번은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그를 죽이려 하자, 식객(食客) 중에 개를 가장하여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사람과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여기서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 조(趙)나라의 평원군(平原君)은 진(秦)나라 군사가 조나라 도읍을 포위하자 평소에 식객으로 대접한 모수(毛遂)의 책략으로 초(楚)나라의 원군을 얻어 이를 물리쳤다. 또 삼국지(三國志)에서 유비는 조조의 식객 노릇을 하며 힘을 길러 촉(蜀)나라를 세운다.

하지만 요즈음 '식객'이란 말은 '맛의 협객'이란 의미로, 천하 제일의 맛을 찾기 위해 팔도강산을 누비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